



나누며 하나 되기, 남원시에 이웃돕기 물품 기탁

남원시는 7일 대한불교 천태종 신하 법인인 나누며 하나 되기에에서 6천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천태종 관수사 신도회장, 하나되기 진장호 사무처장 시 지역이동센터협의회 허경숙 대표가 참석했다.
후원 물품 KN94 마스크, 천연비누, 주방세제, 액체세제 등 2천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은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어린이 마스크, 영양제, 우산 등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은 23개소 지역이동센터 아동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성금·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620-6333) 및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해 주신 '나누며 하나되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양오봉 총장, 글로벌대학협의회회장 선임

글로벌대학 혁신 모델 개발 · 성과 확산 · 홍보 등 협력 주도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글로벌대학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선정된 10개 대학 총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초대 회장으로 양오봉 총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양 총장은 글로벌대학협의회회장으로서 앞으로 글로벌대학 간 혁신 모델 개발과 성과 확산 각종 홍보 등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글로벌대학협의회는 글로벌대학 모델 개발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 분석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



굴·공유를 위한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그리고 각 대학 간 공동 홍보 전략도 수립한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상호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모델 개발과 확산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대학협의회로 기부했다"며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한 우리의 협업이 각 대학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의 동반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남원시, 희망2024 나눔캠페인 기부자에 감사패

남원시는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참여한 25명의 고액 기부자들에게 7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된 '희망2024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현금·현물 5백만원(현금, 현물) 이상 고액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는 기업 10곳, 기관·단체 7곳, 개인 8명을 포함한 총 25곳으로, 740건에 6억2천7백만원의 모금액이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남원시가 살만하고 따뜻한 도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며, 행복한 남원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읍 시기동 주민자치회,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정읍시 시기동 주민자치회(회장 임장훈)는 7일 월례회의 후 봄 맞이 거리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고, 봄을 맞아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위원들은 마을 골목과 산책로 등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지역 환경을 가꿨다.
임장훈 회장은 "봄을 맞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를 더욱 밝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희 등장은 "봄 맞이 환경정화 활동에 솔선수범 참여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기동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4대 종단 대표 간담회 개최

전춘성 진안군수는 7일 4대 종단 대표들과 한자리에 모여 군민 화합과 진안군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전춘성 군수는 정전면 천황사에서 불교(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 주지 능엄), 천주교(천주교 전주교구 진안성당 주임신부 김진화), 원불교(원불교 진안지구장 손옥희), 기독교(진안군 기독교 연합회장 윤석중) 등 4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평화콘서트 등 군민 화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2024년에도 진



안군 발전 및 군민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춘성 군수는 "앞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르는 군민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군민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4대 종단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종단 대표들은 "종교 간 벽을 허물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군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동부건설 윤진오 대표,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

(주)동부건설 윤진오 대표가 지난 6일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임실군에 기탁했다.
(주)동부건설은 건축 및 토목 종합 건설업체로 1969년 창립하여 국내 건설 업계를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목 및 인프라 공사로 해외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윤 대표는 "임실군의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많은 분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임실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멀리서도 임실을 잊지 않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중한 기부금이 임실군민 복리증진과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대표 특산품인 임실치즈·요거트와 임실치즈를 활용한 소시지를 시중 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으로 제공해 기부자들이 더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김제시 관내농협, 칼같이 봉사활동 실시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는 김제 관내 8개 농협에서 칼같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시골 어르신들은 길을 한번 서면 10년이고 20년이고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데 날을 제대로 갈아주지 않으면 손목이 상하고 종종 다치는 일도 벌어진다. 농협은 평소 칼 관리가 힘들었던 농민과 주민들을 위해 칼같이 봉사를 결심했고, 직원들이 직접 갈 가는 방법까지 배웠다.
고령의 할머니는 "예전에는 장날 장에 가면 칼을 갈수 있었지만 요즘엔 갈 갈아주는 데도 없는데 농협에서 해주니 좋다"며 농협의 칼같이 활동을 반겼다.
동김제농협 최진오 조합장은 "칼 갈린 칼을 본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민원실 봄맞이 새 단장... 불편 없는 민원실 중점

남원시는 올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실에 대해 봄맞이 새 단장을 추진했다.
이번 봄맞이 새 단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에게도 불편함이 없는 민원실에 중점을 두고 창구에 민원 사무를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부착하고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영문도 표기했으며, 휠체어 사용 민원인도 사용이 가능한 높낮이가 다양한 서식대를 설치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누구나 휠체어, 유모차, 보청기, 확대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민원인 방문 시 6개 국어가 지원되는 AI 통·번역기를 이용할 수 있고, 수어 상담 화상 전화를 이용해 청각장애 민원인도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뜻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오래된 민원인 대기 의자를 교체하였고, AI 방역로봇이 항상 민원실을 자율주행하며 공기정화와 바다 살균 등으로 매일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민원 센터에 미니 포토박스와 큰 글자로 제작된 각종



인문학 생활 도서 등을 비치하는 등 편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한편 권혜정 민원과장은 "민원실 방문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쓰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무주군가족센터, '바리스타 자격취득과정' 개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3월에서 7월까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주군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11명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매주 화, 목 주 2회 안성시방에서 진행하며 1차와 2차 12회기씩 총 24회기로, 주 2회 교육을 통해 바리스타 2급 과정의 합격률을 높일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담당자는 "이번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을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분들이 개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역 내 취업 및 창업의 선택 영역을 넓혀 안정적 생활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성희롱 예방교육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근절방법 등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병희 지부장은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김제스포츠클럽-김제만경중,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스포츠클럽(회장 홍경수)이 지난 6일 김제만경중학교(교장 신성욱)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만경중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스포츠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 노력·스포츠 교육자원 계획 수립과 생활체육의 확대를 통한 선수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측에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또한 김제스포츠클럽은 전년도인 2023년 6월 창단된 만경중학교 소속 탁구부 선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스킬트레이닝 등)을 진행하고, 김제스포츠클럽 지도자 협조를 비롯해 각종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홍경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만경중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뿐만 아니라 김제시 스포츠 교육의 발전과 선수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김성수 무주지점장, 사제로 장학금 기탁

무주군은 7일 김성수 씨(전북은행 무주지점장)가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사제로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씨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과 든든한 지원 속에서 꿈을 찾아 당당히 세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도·농간 교육격차 없는 무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율러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은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